

민주, 선심성 대책 남발... '이남자' 잡으려다 '이여자'도 놓친다

<20대 남자>

<20대 여자>

군가산점 부활 제안 여성계 강력 반발 '젠더 갈등' 촉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외치지만 뾰족한 대책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4·3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LH 일부 직원의 투기 의혹 등으로 그동안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던 젊은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되면서 '맞춤형 정책'을 찾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당내에선 가상화폐 대책부터 군 가산점제 부활론까지 청년층 구미에 맞춘 선심성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다. 4·7 재보선에서 등 돌린 젊은층의 민심을 되돌려 세우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전용기 의원의 제안한 '군 가산점제 부활'이 대표적이다. 군 복무자에 대해 채용 혜택을 주거나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방안도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 싸늘한 '이남자' (20대 남자) 민심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런 흐름에 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차원의 논의라고 하면 과한 측면이 있지만, 국방위 차원에서 관련 토론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20대와

30대에 비토당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에서 군 복무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대우를 해주는 방식들을 이제 조금 더 열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대책도 비슷한 흐름이다. '거래소 폐쇄'를 언급해 '코인민심'을 들끓게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앞다퉈 때리고 투자자 보호를 외치는 것은 물론 당 차원의 대책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발빠른 달래기에 나섰다.

화두는 던졌지만, 정작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뾰족수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군 가산점 부활론은 곧바로 여성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면서 집권여당이 '젠더 갈등'을 촉발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서도 정부의 감독 방안에 대해선 "가상자산의 철학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고민스럽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성격 자체가 무정부성으로 국가 권력의 통제를 벗어났고 개인간 거래를 한다는 것이 근본이지만, 필요하면 정상적 투자자를



원내대책 회의에서 발언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 등이 코인민심 달래기의 일환으로 주장한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론 역시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군 가산점 문제는 젠더 갈등을 터뜨릴 논쟁적 이슈이고 가상화폐 이슈는 폭발력이 강한데다, 내년 대선까지 이

어질 수 있어 더욱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재난 때 '필수업무 종사자' 제도적 지원 길 열려

전남도의회, 조례안 수정 의결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현창, 구례)는 27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경관위) 회의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당초 초보라미 의원(영암2, 초선)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정됐으나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이 마련되면 의결코자 보류했다. 이후 지난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5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남김에 따라, 조례안 심사도 이어졌다.

경관위에서 이날 수정 의결한 조례안은 당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대면 업무 종사자에 국한된 필수노동자 범위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

황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직접 필수업무와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수산단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대기업 적반하장

업체들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 거부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서 대책 촉구

발암물질 등이 포함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측정값)을 조작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수산단 입주 대기업들의 적반하장식 행태가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서에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는 2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희(더불어민주당, 여수 6) 의원은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업체들이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발했다.

강 의원은 "범죄기업들의 범죄 행위가 지난 2015년부터 4년여 지속됐다. 범죄가 환경부 발표로 밝혀진 지 2년이 지났다"며 "민관거버넌스는 회의를 거듭하면서 조작업체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으나 업체 측은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반기업들이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환경 및 건강 역학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의 불법행위와 주민 건강 사이 인과관계가 드러나 배상 책임이 불거지기 때문"이라며 전남도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들이 저지를 범죄행

위다"며 "위반기업들이 권고안을 수용하도록 전남도가 적극 개입하겠다.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전남도 차원의 용역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남도와 여주시 그리고 시민사회는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발표 이후,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출범시켰다. 거버넌스는 회의를 거쳐 지난 2월 총 9개 항목으로 된 권고안을 확정했다.

여수산단 환경오염 실태조사, 주민 건강 역학조사, 위반업체 민관 합동조사 등이 골자다. 환경오염 실태조사 범위는 산단 주변 10km, 주민 건강 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는 산단 주변 4km로 정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여수산단 거버넌스 워킹그룹 대부분은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 용역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일부 위원 의견이 과다대표됐다"고 주장하며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 복심' 양정철 귀국...대선 국면 역할론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미국에서 약 3개월만에 귀국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선거 참패 후 진로 모색에 부심하는 상황에서 조기에 돌아온 양 전 원장이 대선 국면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지 않겠느냐는 '역할론'이 여론 내에서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들이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객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해온 양 전 원장은 최근 귀국한 것

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자가격리를 마친 상태로, 소수의 주변 인사들만 접촉하며 잠행 중이라고 한다.

그와 가까운 한 인사는 "재보선 후 당 상황이 복잡미묘한 상황인데다, 전당대회까지 진행 중이어서 양 전 원장이 처신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며 "귀국 후 아직까지 정치인들을 일절 안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당 대표 등 새 지도부를 뽑는 5·2 전당대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예민한 시점이라는 점도 감안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이병훈, '공공기관 업무상 비밀 이용 비리엄벌' 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27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며 제3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동안 교묘하게 이루어졌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차명을 통한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4·7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의 준엄한 꾸짖음을 받들어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채권 신고 공고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관련)

당 회사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하 "본 사업")의 민간공원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이하 "SPC")의 대표 주간사이자 최대주주로서, 본 사업 관련 SPC의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SPC에 대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본 사업이 정상화된 후 채권부인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 신고 기간: 이 공고 게재 다음 날부터 1개월
- 신고대상채권: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에 대한 채권
- 신고담당자: (주)한양 RM팀 이영재 팀장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길 12, 한양타워 13층, 02)721-8735)

2021. 04. 28.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의 대표 주간사 주식회사 한양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채출공고)

주식회사 온누리전기(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덕양(이하 "을"이라 함)은 서기 2021년 04월 27일 개회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가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문을 "을"에 할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부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서기 2021년 04월 28일

갑 상 호: 주식회사 온누리전기 (법인등록번호: 214711-0642336)
소 재 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예술관광길 6-1
대표이사: 김중근

을 상 호: 주식회사 덕양 (법인등록번호: 200111-0348768)
소 재 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군동계산길 69
사내이사: 조용훈

자본감소 및 주권 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1년 4월 28일 개회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603,000,000원을 중 금 100,000,000원을 감하여 자본금의 총액을 금 503,000,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당 금 10,000원의 주식 60,300주 중 10,000주를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배당하여 임의 감상처리는 방법으로 감상하여 총액 금 503,000,000원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부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주주권을 가진 사원은 위 같은 기간에 주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8일

태동중공업 주식회사
광주 남구 내남로 283, 2층(태동산동)
대표이사 김재호

산행안내

5월9일(일)
▲광주Kj산악회 5월9일(일) 경남 산청군, 황매산, 절쪽꽃 산행, 염주체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지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동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칸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타라부즈,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기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리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01-5 삼성유희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